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 갈라디아서 3장  
5-13절

Tag: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  
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  
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  
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  
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3:5-13)

성경에는 ‘의인에 대한 기준’ 이 명확하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며 중요하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다.

즉, 누구든 그가 의인으로 인정되는 조건에는 하나님의 동의를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물리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이런 저런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그렇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는 않으신다.

아주 드물게는 보편적으로 죄인으로 알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의도와 사정과 성정을 아시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

1. 성경에서는 일단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7:20)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3:10)

2. 율법은 도데체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를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 모두를 지켜서 비로소 의인이 되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이다.

-즉 율법준수는 의인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인 셈이다.

(핵우산 개념;핵이 있음으로 일단 평화는 확보되지만, 핵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언약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 무조건 율법만 지킨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지, 할례가 곧 율법은 아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이다. 그래야 그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면허를 얻은 셈이다.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하면 안된다.

4.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이때 율법을 배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의 댓가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5. 율법의 저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풀어진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진리의 불꽃들이 모아지면서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불꽃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타는 것과 같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시동이 걸린 자동차처럼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십삼 세였더라

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17:1-27)